

특특뉴스

루이비통, 시내면세점 매장 철수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이 2023년 3월 까지 한국 내 시내면세점 매장을 모두 닫을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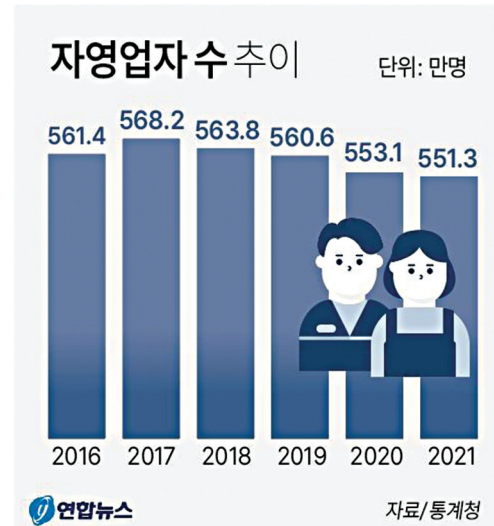
17일 영국의 면세유통전문지 무디 데이빗 리포트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롯데면세점 제주점 매장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3월 신라면세점 제주점, 롯데면세점 부산점과 잠실 월드타워점에 있는 매장을 추가로 닫을 예정이다.

루이비통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본점에 있는 나머지 시내면세점 매장을 올해 10월과 내년 3월 사이에 모두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이비통은 시내 면세점보다는 공항 면세점, 특히 중국의 국내선 공항 면세점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디 데이빗 리포트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은 이번 철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루이비통은 2023년까지 제2터미널에 두 번째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래픽 경제



지난해 자영업자 수 551만명

지난해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자영업자는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51만3,000명으로 재작년보다 1만8,000명 감소했다. 재작년 자영업자 수가 7만5,000명이 줄어 상당한 저지효과가 있었는데도 또다시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도소매 업종 취업자가 15만명, 숙박업과 음식업 취업자가 4만7,000명 줄어드는 등 자영업자가 주로 포진한 대면 서비스 업종이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72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6만9,000명 늘었다. 2020년 취업자 수가 21만8,000명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소 폭 이상을 만회한 것인데 자영업자들은 이런 훈풍을 받지 못한 것이다.

“안전 먹거리 공급 농어업인 소득증진 앞장”

2022년 지역경제인에 듣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식량 안보 강화 ‘종합가공 콤비나트’ 추진

수매·비축 통해 주요작물 국내 자급률 향상

공공사업 규모 확대 지자체 푸드플랜 기반 조성

“농수산식품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과제 발굴과 실행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핵심사업으로 ▲식량안보 강화 ▲식량위기 대응 ▲먹거리 복지 향상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 강화 ▲농어가 소득 증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식품산업 지원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 확보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다”며 “식량·식품 종합가공 콤비나트 추진 및 실행계획 구체화 식량위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식량위기에 대응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자급률이 낮은 콩·밀 등의 생산기반 강화와 수요처를 발굴하고, 수매·비축사업을 통해 주요 작물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식량위기에 대비해 국가차원의 식량안보와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

며 “지난해 제한한 식량·식품 종합가공 콤비나트 설치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 등과 면밀하게 협의해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급관리의 스마트화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국민의 먹거리 복지향상과 푸드플랜 확산에 힘쓰고, 신 유통채널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농식품바우처와 같은 공공먹거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다”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와 지자체 푸드플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유치원, 복지시설, 군급식 등으로 활용범위를 넓히는 플랫폼화 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공급식을 조달하겠다”며 “온라인 경매,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새로운 유통방식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대한민국이 농수산식품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와 물류대란의 위기에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며 “네덜란드와 같이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향해 힘차게 뛰고, 농수산식품 수출이 국내 농어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 올해는 수산물 관련 조직을 확대해 공사의 수산물 분야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김 사장은 “농어가 소득증대와 국산 농수산식품 소비저변이 확대를 위한 식품산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생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후방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식품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며 “국산 농수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품외식업체, 전통식품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식품외식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제공, 청년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식품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마지막으로 “ESG경영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ESG경영 실천의 원년을 선포했고, 올해도 ESG경영이 공사 사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전개하고, ESG경영의 선도적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은행, 설 앞두고 중기 특별자금 지원

5천억 편성...내달 25일까지 긴급 자금난 해소 기대

광주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5,000억원을 편성해 오는 2월 25일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현안을 고려해 민생안정 대책으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을 앞두고 발빠르게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자금 3,000억원과 2,000억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함께 편성해 이 기간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받은 고객이 원할 경우, 만기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설 특별자금대출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0.70%포인트를 우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은 매년 명절에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침으로써 지역밀착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2021년 12월말 기준 2만 7,422건, 1조2,464억원에 이르고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이번 설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펼쳐 지역과 상생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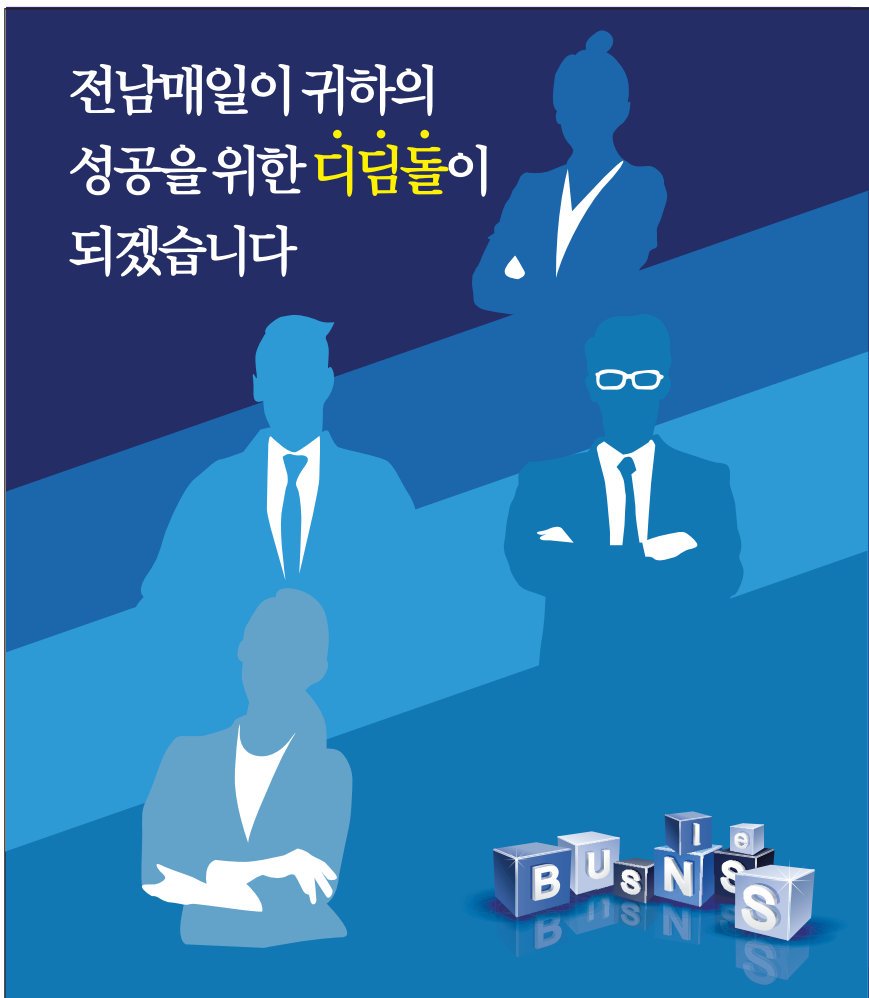
협력업체 공사대금 조기지급 중흥그룹, 1,200억 현금으로

중흥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지급 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대금은 약 1,200억 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의 원활한 자금운동을 위해 설 명절 전에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50여개 공사현장의 협력업체들이 직원들의 임금 및 자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흥그룹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1,000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

/이연수 기자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는 비즈니스클럽으로 회원 여러분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좌로 당신을 자신감과 리더십 그리고 열정을 갖춘 최고지도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부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접수기간

2021. 11 ~ 2022. 02. 18(금)

강의장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젤리아홀

강의시간

월요일 19:00~ 20:00 (※18:00 호텔식 식사후 강의)

교육기간

2022년 3월 ~ 2022년 12월 (1년 16강 과정)

수강료

350만원 (부가세포함)

접수처

전남매일 사업국
Tel. 062) 720-1011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